

광주시장, 이용섭 vs 강기정 '리턴매치' 불꽃 경쟁

민주 정준호·김해경 출마...여론조사 '박빙' 부동산·권리당원서 승부 정의 장연주·진보 김주업 출사표... '미정' 국민의힘도 후보 가세할 듯

6·1 제8회 지방선거에서 '호남정치 1번지' 광주를 이끌 수장이 누가 될 지 벌써부터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여권의 심장부인 광주는 '더불어민주당 공천=당선' 구도가 확실시되는 가운데 민주당 공천장을 거머쥐기 위한 치열한 경쟁이 시작됐다. 광주시장 재선 도전에 나선 이용섭 예비후보와 지난 7회 지방선거 당내 경선에서 고배를 마신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간 리턴매치가 시작됐다. 여기에 정준호 변호사와 김해경 남부대 초빙교수가 출사표를 던졌다. 4표전 양상이지만, '빅2의 재대결이 치열해 민주당내 경선 중에서 격전지 중 격전지로 분류된다. 민주당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 시기와 방식이 결정되지 않았지만 지난 2018년 지방선거 경선때 도입된 국민참여경선인 '시민여론조사 50%+권리당원 투표 50%'가 유력하다는 관측이다. 이용섭 예비후보와 강기정 예비후보가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실시한 각종 여론조사에서 오차범위 내 박빙 승부를 펼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여론조사 결과에서 보듯 30%에 가까운 부동산의 향배와 함께 권리당원 투표에서 승부가 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청장과 행정부장관 등 중앙정부 요직을 두루 거친 이용섭 예비후보는 높은 인지도가 강점으로 꼽힌다. 도시철도 2호선, 광주형일자리 등 굵직한 지역 현안을 핵심있게 해결하고 인공지능(AI) 중심도시와 광주형 뉴딜정책 등 광주 미래를 위한 사업에도 선도적으로 대응해 나름대로 평가를 받고 있다.

광주광역시장 예비후보자(가나다순)



강기정 김주업 김해경 이용섭 장연주 정준호

최근 재선 도전을 공식 선언한 이 예비후보는 "중단없는 광주 발전을 통해 더 크고 더 강한 광주를 완성하겠다"고 밝히고 ▲광주와 전남의 통합 완성 ▲달빛고속철도 조기 착공으로 1800만 인구를 하나로 잇는 동서초광역경제권 구축 ▲시민이 행복한 '그린 스마트 펀 시티(Green Smart Fun City) 완성 등을 공약했다. 4년 전 경선 패배를 딛고 재도전에 나선 강기정 예비후보는 3선 국회의원의 정치경력과 문재인 대통령을 지근 거리에서 보필한 청와대의 경험과 인맥을 바탕으로 광주·호남의 큰 그림을 제시하고 있다. '최장수 정무수석'에서 물러난 뒤 '더 큰 광주, 그랜드 비전'을 발표하는 등 '통 큰', '준비된' 시장 후보로서의 면모를 보이며 지지자를 규합해왔다. 최근 광주시장 출마를 선언한 강 예비후보는 "당당하고 빠르게 새로운 광주시대를 열겠다"면서 ▲5개 신산업지구와 5개 신활력특구를 통한 광주신경제지도 완성 ▲교육과 안전의 컨트롤타워 ▲담보 상태 광주문제 6개월 내 답 제시 ▲군공항 이전 문제 임기 내 대안 제시 ▲북합쇼필름 등 시민편의시설 유치 등을 공약했다.

약했다. 20대 총선에서는 본선에서, 21대 총선에서는 민주당 경선에서 쓴 맛을 본 정준호 변호사도 일찌감치 시장 선거 출마를 준비해 왔다. 정 예비후보는 출마선언에서 "민주, 인권, 평화의 빛을 계승하고 친환경 에너지, 인공지능이라는 새로운 빛을 발산시키겠다"며 ▲광주형 4대 타운 ▲골프장 품은 암치유센터 ▲광주형 게임체험관 ▲두꺼비 프로젝트 ▲대중교통 친화도시를 위한 광주형 역사권 ▲걸는 청년문화벨트 ▲전남과 화합하는 광주형 관문을 7대 공약으로 내세웠다. 광주은행 첫 여성임원 출신인 김해경 남부대 초빙교수도 출마를 선언했다. 금융권에서 쌓은 다양한 현장 경험과 네트워킹을 강조하고 있는 김 예비후보는 "인권도시를 기반으로 광주를 경제도심으로 만들겠다"면서 "커머스시장을 겨냥한 아마존과 같은 전자상거래 시장 플랫폼을 통해 세계적 경제도시로 거듭나게 할 것이며, 이를 위해 광주시장 직속 마케팅 전담 부서 설립 및 전문인력을 확충하겠다"고 공약했다. 야권에서는 정의당 장연주 광주시의원이 뛰고 있다. 장 예비후보는 광주여성노동자회장과 아름다운공동체 광주시민센터 대표 등을 거치며 다양한 사회·노동운동을 해왔다. 장 예비후보는 ▲전시민 '친환경 무상교통' 실현 ▲'1 가구 1 태양광 발전' 지원 ▲자전거 중심도시 추진 ▲녹색기후일자리 1만개 ▲돌봄일자리 1만개 (모다 돌봄돌봄센터 설립) ▲여성가족국을 성평등가족국으로, 여성부시각 임명 ▲5·18 인권레지던시 조성 등 9대 공약을 제시했다. 진보당 김주업 광주시당위원장도 선거전에 뛰어 들었다. 김 예비후보는 광주 북구청에서 공무원으로 재직하며 2015년부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으로 활동하다 지난 총선에서 민중당(현 진보당) 서구갑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하면서 공직을 시작했다. 김 예비후보는 ▲시장이 직접 만드는 연봉 4000만원 일자리 3만 개 ▲광주시 소유의 평생 임대아파트 모델 도입 ▲광주 송정 군 공항 폐쇄 ▲농민수당 도입 ▲광주 공공병원 설립 등을 공약했다. 이외에도 아직 윤곽이 드러나지 않았지만 지난 대선에서 사상 최고 득표율을 올린 국민의힘도 시장 후보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박남천기자

전남지사, '격세지감' 민주당·국민의힘 뒤바뀐 당세

민주당 김영록 전남지사 경쟁자 없어 국민의힘 이정현·이중효 복수 후보군 진보당 민점기 전 본부장 표발같이 증

6·1지방선거 전남도지사 선거는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김영록 전남지사의 대항마가 없어 민주당과 집권여당인 국민의힘, 진보당의 3자 대결구도가 형성됐다. 전남지역이 민주당의 텃밭이라는 점에서 국민의힘과 진보당의 당선 가능성보다는 어느정도 득표율을 올리느냐가 관전 포인트다. 2일 전남지역 정가에 따르면 민주당 전남지역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현직 국회의원 10명 모두 이번 전남지사 선거에 출마하지 않는다. 민주당 당헌 당규는 지역위원장도 지방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지난달 12일까지 지역위원장직을 사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10명 모두 사퇴하지 않았다. 전남도지사 후보군으로 꼽혔던 민주당 현직 국회의원이 불출마하면서 김영록(67) 현 전남지사의 단독 후보가 유력해졌다. 김 지사는 경쟁 후보가 없을 경우 당내 경선 없이 중앙당 검증을 받은 뒤 곧바로 본선거에 출마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지사는 경선이 치러지지 않으면 후보등록 기간인 5월 12일 전까지 직위를 유지한 채 도정 공백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5년 만에 정권을 되찾은 국민의힘은 예년 지방선거와 사뭇 다른 분위기다. 이번 대선 결과 윤석열 당선인이 전남에서 보수 후보 사상 최대 득표율인 11.44%를 올리면서 거물급 후보 등 전남지사 후보군이 2명에 달한다. 민주당 후보군이 김영록 전남지사 1명인 데 반해 예전 같으면 후보 찾기도 힘들었던 보수 정당의 후보가 2명이나 되는 등 민주당과 국민의힘 당세가 역전됐다. 국민의힘에서는 한 때 '왕의 남자'로 불리며 당 대표까지 거머쥐었던 이정현(64) 전 새누리당 대표가 출마한다. 이 전 대표는 보수의 불모지인 전남에서 국회의원 3선을 하며 당 대표까지 올랐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후광을 입었지만, 국회의원 재직시 호남의 예산 확보와 민원 처리에 진정성을 보이며 호남 정치의 다양성을 확대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전 대표는 "전남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를 최우선으로 쟁기겠다. 건강한 정책 경쟁이 결국은 전남도민의 이익에 부합할 것이다"며 "이번 전남지사 선거는 탈정치하고, 도민 삶의 문제를 고민하는 장이 되도록 하겠다"고 출마 결심을 밝혔다. 국민의힘 이중효(61) 영암·무안·신안군 당협위원장도 전남지사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다. 이 위원장은 "전남은 과거 수십년 간 특정 정당에게 물표를 주었지만 그 정당과 정치인들은 지역발전을 위해 무엇을 했는가"라며 "국민들은 이번 대선에서 정권 교체를 선택했다. 특정 정당의 정치인을 더 이상 선택하지 말고 새로운 사람, 이중효를 선택해 달라"고 말했다.

전라남도지사 출마 예정자(가나다순)



김영록 민점기 이정현 이중효

국민의힘 전남지사 후보가 복수가 되면서 경선이 치러질지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누가 국민의힘 전남지사 후보가 되더라도 본선에서 어느정도 득표율을 올리느냐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윤 당선인이 대선에서 11.44%를 기록한 만큼 지방선거에서 윤 당선인의 득표율을 뛰어넘을지가 관심사다. 진보당은 민점기(65) 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남본부장이 선관위에 전남지사 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뛰어 들었다. 민 전 본부장은 민주노동당 통일위원장과 광주전남진보연대 상임대표 등 노동운동과 시민사회운동에 전념해 왔다. 김재환기자

한정승인 공고

사 건 번 호 : 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2022 느단 10090 상속한정승인
 사 망 자 : 서춘성 (781101-1630223)
 최 후 주 소 : 광양시 금영로 16, 204동 202호 (광영동, 광양광영사랑으로부영2차)

위 망 서춘성에 대하여 상속인은 민법제 1028조에 따라 한정승인 하였으므로 민법제 1032조(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함. 신고기한(공고일로부터 2개월)내에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함.

2022년 4월 4일

공 고 인 : 1.양희원, 2.서가은, 3.서누리 (청구인 2,3 법정대리인(친권자 모) 양희원)
 주 소 : 광양시 금영로 16, 204동 202호 (광영동, 광양광영사랑으로부영2차아파트)
 한정승인수리일 : 2022년 3월 24일
 공 고 기 간 : 2022. 4. 4 ~ 2022. 6. 4

www.nhis.or.kr

"건강보험, 月10만원 내고 18만원 혜택 받았다!"

2016년 현재 국민은 한 세대당 평균 104,062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평균 183,961원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았으며, 보험료 납부액의 1.77배에 달하는 금액 혜택을 받으셨습니다.

건강보험 혜택 183,961원

월보험료 납부 104,062원

1.77배

2016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비

급여	보험료	비율
5분위	240,833원	1.1배
4분위	125,531원	1.7배
3분위	79,147원	2.1배
2분위	48,103원	2.7배
1분위	26,697원	5.3배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 세무기장·조정
- 법인설립
- 양도소득세
- 상속증여세

박우열
세무회계사무소

Tel 062)710-8700
Fax 062)710-5400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911번길 4 2층

한국인문지능재단 Korea Foundation

퇴근시간 엄수, 행복시간 준수!

일은 근무 시간에 하는 퇴근 이후엔 생활 속의 위기를 살인으로 기겁과 공포가 모두 행복해옵니다.

국민 이해관계자 위한 슬로건입니다.